

## 깊은 잠(타르데마)의 신학적, 상징적 의미

김선종\*

### 1. 도입

수많은 현대인이 피곤에 지쳐 있다. 깨지 않을 때까지 깊은 잠을 자고 싶어 한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잠 20:13)’<sup>1)</sup>를 비롯하여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나는 잠에 대한 경고(잠 6:9; 19:15 등)는 전구를 발명하기 전 잠을 충분히 잘 수 있는 구약 시대를 배경으로 읽으면 그 참된 가르침을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sup>2)</sup>

사람을 비롯한 생명체가 잠을 자는 현상은 단지 생물학, 생리학, 의학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일 뿐 아니라, 신학, 철학, 심리학, 문학 등 여러 학문의 연구 분야이다. 신학자는 사람이 자는 시간 동안 꿈을 통해 주어지는 계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잠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은유, 사람이 자는 잠과 하나님이 주무시는 잠(시 44:24[한글 23]; 78:65)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심리학자 프로이트(S. Freud)가 꿈과 관련된 무의식의 영역을 객관적인 지식 탐구의 대상으로 격상시킨 이후,<sup>3)</sup> 철학 역시 그동안 의식과 이성 밖의 영역으로 여긴 꿈과 잠의 문제를 주요한 토론의 주제로 삼고 있다.<sup>4)</sup> 계몽주의 사상가이자 문학가인 루소(J.-J. Rousseau) 역시 『신엘로이즈』에서 ‘유아기를 벗어나라! 벗이여, 잠을 깨라!(Sors de l'enfance, ami, réveille-toi!)’고

\* Université de Strasbourg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호남신학대학교 구약학 조교수. sjkim@htus.ac.kr.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고(NRF-2011-332-A00058), 2014년 9월 26일 헛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열린 제96차 한국구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다. 논찬을 해주신 오원근 박사님과 원고를 세밀하게 읽고 제언해 주신 성경원문연구의 심사자들에게 감사한다.

- 1) 이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을 인용한다.
- 2) 잠과 밤이 문화사에서 갖는 의미에 대한 탁월한 연구를 위하여는 A. R. Ekirch, 『밤의 문화사』, 조한욱 역 (과주: 돌베개, 2008)을 보라.
- 3) S. Freud, 『꿈의 해석』, 홍성표 역 (서울: 홍신문화사, 2001).
- 4) 예를 들어, 김상환, 홍준기 편, 『라캉의 재탄생』 (서울: 창작과비평사, 2002).

말함으로써 무지한 과거와 이별하고 새 시대를 맞이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sup>5)</sup>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러 분야에서 잠에 대해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삶의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잠에 대한 신비를 실제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창세기 2장 21절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라는 구절에서 연구의 출발점을 삼고 있으며, 2012년에 출판한 “칠십인역 잠언 18:8; 19:15의 안드로키노스: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인간이해”<sup>6)</sup>에 대한 후속 연구에 해당한다. 이 논문에서는 히브리 사상과 헬레니즘 사상에 나타난 인간 창조 신화를 비교하고 분석하여, 이 두 사상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보임으로써 인류가 공유하는 보편성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 가운데 창세기 2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떨어뜨리신 ‘깊은 잠’이 과연 문자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 단지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것인지, 아니면 구약 주변세계에 나타나는 신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연구 과제로 남겨 놓았다.

이 글에서는 먼저 ‘잠’과 관련된 히브리 낱말 세 개를 비교하고, 히브리 성경과 헬레니즘 신화에 나타난 잠과 죽음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깊은 잠’에 대한 칠십인역의 번역을 살펴봄으로써 구약에 나타나는 ‘깊은 잠’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밝히려고 시도할 것이다.

## 2. 잠과 관련된 세 낱말: 눤, 야산, 라담

잠과 관련된 대표적인 히브리어 동사는 ‘눤’(נָם)과 ‘야산’(יָשַׁן)과 ‘라담’(רָדַם)이고, 여기에서 파생된 명사는 각각 ‘트누마’(תְּנוּמָה)와 ‘세나’(שֵׁנָה)와 ‘타르데미’(תַּרְדֵּמָה)이다. 여느 언어가 그러하듯이, 비록 사람들이 편의적으로 동의어라는 표현을 사용할지라도 완전히 같은 뜻을 가진 낱말은 없고, 서로 다른 낱말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다른 미세한 뜻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보여준다. 서로 다른 낱말이 동의어라는 항목 아래 하나로 뭉뚱그려진다면, 하나의 낱말 이상의 다른 낱말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sup>7)</sup>

5) J.-J. Rousseau, *La Nouvelle Héloïse* (Paris: Le Livre de Poche, 2002), 132. 우리말 번역을 위해서는 장 자크 루소, 『신엘로이즈 1, 2』, 서익원 역 (서울: 한길사, 2008)을 보라.

6) 김선중, “칠십인역 잠언 18:8; 19:15의 안드로키노스: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인간이해”, 『성경원문연구』 31 (2012), 47-65.

7) 히브리 동의어에 대한 고전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J. Kennedy, *Studies in Hebrew Synonyms* (London: Williams & Norgate, 1898)를 보라.

이러한 사실은 ‘잠’과 관련된 동의어도 마찬가지이다. 구약에 나타난 잠에 대하여 초기에 연구한 학자들은 ‘잠’과 관련된 세 낱말인, ‘눴’과 ‘야산’과 ‘라담’의 용례를 분석하고, 이들을 잠에 들게 되는 과정에 따른 낱말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즉 ‘눴’은 ‘졸다’(시 121:3, 4; 사 5:27)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잠이 들게 되는 초기 단계에 해당하고, ‘야산’은 일반적인 잠을 뜻하고, ‘라담’은 ‘눴’과 ‘야산’의 단계를 넘어 깊은 잠에 빠진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sup>8)</sup>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매우 단순화된 해석으로 보이는데, 첫째는 이들 낱말이 하나의 구절에서 함께 사용되어 관용어구를 이루거나, 서로 병행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서로 같은 뜻을 나타낼 수도 있는 점에서 그러하고(2.1.), 둘째는 이들이 단지 잠의 깊이나 단계를 나타내지 않고 비유적인 의미와 신화의 초자연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는 점(2.2.)에서 그러하다.

## 2.1. 관용어구나 병행구의 경우

먼저 ‘눴’<sup>9)</sup>이 ‘야산’ 또는 ‘타르데마’와 짝을 이루거나, ‘야산’이 ‘라담’과 짝을 이루어 관용어구나 병행구를 이루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시편 76편 6절(한글 5절)에서는 ‘눴’이 ‘야산’과 하나의 관용어구를 이루고 있고(נָמּוּ שָׁנְתָם), 이들은 칠십인역에서 같은 뿌리를 가진 낱말(ὑπνωσαν ὑπνον)로 번역된다.

אֲבִירֵי לֵב נָמּוּ שָׁנְתָם וְלֹא מָצְאוּ כָל־אֲנִשְׁתֵּי־חַיִּל יְדֵיהֶם׃ BHS Psa 76:6  
 ἐταράχθησαν πάντες οἱ ἀσύνετοι τῇ καρδίᾳ ὑπνωσαν ὑπνον αὐτῶν καὶ οὐχ εὖρον οὐδὲν πάντες οἱ ἄνδρες τοῦ πλοῦτου ταῖς χερσὶν αὐτῶν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개정 시 76:5)

욥기 33장 15절에서는 ‘타르데마’와 ‘트누마’<sup>10)</sup>가 병행되어 나타난다.

חַיִּיּוֹן לִלְלָה בְּנִפְלֵ תַרְדֵּמָה עַל־אֲנָשִׁים בְּתַנּוּמוֹתָ עָלַי מִשְׁכָּב׃ BHS Job 33:15  
 ἦ ἐν μελέτῃ νυκτερινῇ ὡς ὅταν ἐπιπίπτῃ δεινὸς φόβος ἐπὶ ἀνθρώπους ἐπὶ

8) J. Kennedy, *Studies in Hebrew Synonyms*, 26-28; M. Oeming, “רדמ; תרדמה *tardēmā*”, TDOT XIII, 337.

9) 사 5:27; 56:10; 나 3:18; 시 76:6(한글 5); 121:3, 4.

10) 욥 33:15; 시 132:4; 잠 6:4, 10; 24:33.

νυσταγμάτων ἐπὶ κοίτης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개정 욥 33:15)

다른 한편 시편 121편 4절과 132편 4절과 잠언 6장 4절과 10절(// 24:33), 또한 이사야 5장 27절에서는 ‘눅’과 ‘야산’ 또는 이들에게서 파생된 명사들이 시적 평행을 이루고 있고, 서로 다른 그리스어, 곧 시편에서는 각각 ‘νυστα조’(νυστάζω)와 ‘취프노’(ὑπνώω), 이사야에서는 각각 ‘νυστα조’(νυστάζω)와 ‘코이마오’(κοιμάω)로 번역되고 있다.

הֲנָה לֹא-יָנֹם וְלֹא יִישָׁן שׁוֹמֵר יִשְׂרָאֵל BHS Psa 121:4

ἰδοὺ οὐ νυστάξει οὐδὲ ὑπνώσει ὁ φυλάσσων τὸν Ἰσραηλ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  
로다(개정 시 121:4)

이러한 것은 ‘야산’과 ‘라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일상적 의미에서 자는 행위를 가리키는 동사 ‘야산’은 구약에서 16회, 여기에서 파생된 명사는 24회, 형용사는 9회 나타나는데, ‘깊이 자다’를 뜻하는 ‘라담’ 또는 그의 명사형 ‘타르데마’와 병행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창 2:21; 삼상 26:12; 시 76:6-7[5-6]; 잠 10:5).<sup>11)</sup>

וַיִּפֹּל יְהוָה אֱלֹהִים | תַּרְדֵּמָה עַל-אָדָם וַיִּישָׁן BHS Gen 2:21

καὶ ἐπέβαλεν ὁ θεὸς ἕκστασιν ἐπὶ τὸν Ἀδὰμ καὶ ὑπνώσεν

여호와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때**(개정 창 2:21상)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낱말들이 하나의 관용어구를 이루거나 평행 본문에서 동의 평행을 이루는 사실은 전통적으로 ‘눅’과 ‘야산’과 ‘라담’을 잠의 단계나 깊이에 따라 그들의 관계를 차등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잘못된 해석 방식임을 보여준다.

## 2.2. 비유와 상징의 맥락

둘째로 세 단어를 잠의 깊이나 단계로 해석하는 것은 단지 잠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이고 생리적인 차원만 가리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11) J. Schüpphaus, “יָן, yāsēn”, TDOT VI, 439.

방식으로 잠과 관련된 낱말을 설명할 때, 이 낱말들이 비유적인 의미와 신화라는 초자연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는 차원을 간과하게 된다.

비유 또는 상징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용례는 먼저 잠이 죽음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경우로서 잠이 죽음의 상태로 묘사되거나(시 13:4[3]; 렘 51:39, 57; 요 11:11-13 등), 죽음은 일종의 잠이라는 표현이다(욥 14:10-12 등).<sup>12)</sup> 예를 들어 시편 13편 4절은 잠을 죽음에 비유하고 있다.

פְּרָאִישׁוֹ הַמֶּוֹתָּה עֵינַי פְּרָאִישׁוֹ הַמֶּוֹתָּה עֵינַי יְהוָה אֱלֹהֵי הָאֵרֶזָה BHS Ps 13:4

ἐπίβλεψον εἰσάκουσόν μου κύριε ὁ θεός μου φώτισον τοὺς ὀφθαλμούς μου μήποτε ὑπνώσω εἰς θάνατον

여호와와 내 하나님이며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개정 시 13:3)

독자들은 히브리 본문에서 잠이 죽음과 함께 사용된 ‘죽음의 잠’을 그저 하나의 비유와 문학 표현으로 단순하게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히브리 본문이 칠십인역의 그리스어로 옮겨지면서 갖게 되는 의미의 차원은 또 다르다. ‘야산’(잠자다)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휘프노’(ὕπνῳ)와 ‘마베트’(ἕπν 죽음)의 대응어인 그리스어 ‘타나토스’(θάνατος)는 그리스 신화에 나타나는 잠의 신인 ‘휘프노스’와 죽음의 신인 ‘타나토스’와 연결됨으로써, 그리스-로마 문명에서 칠십인역을 읽은 당시의 독자들은 잠과 죽음이 갖는 차원을 보다 더 극명하게 받아들였을 것임은 분명하다. 휘프노스와 타나토스는 쌍둥이 신으로서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이들은 제우스신을 잠들게 하였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칠십인역 번역자가 히브리 낱말 ‘죽음’을 번역하기 위하여 그리스어 ‘휘프노스’를 사용하기도 하였다는 사실인데(집회 35:20),<sup>13)</sup> 이것은 그리스 문명권에 있던 칠십인역 저자의 무의식에 작용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물론 히브리 성경에서 잠과 죽음이 갖는 관계는 그리스 신화에서처럼 직접적인 관계나 인격체 또는 신들의 관계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보다 후기 히브리 문학에서 잠과 죽음의 관계가 더욱 직접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톰슨(J. G. S. S. Thomson)이 분석하고 있듯이 유대인들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12) 더 많은 용례를 위해서는 J. G. S. S. Thomson, “Sleep: An Aspect of Jewish Anthropology”, *VT* 5 (1955), 423-424를 보라.

13)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H. Balz, “ἕπνος”, *TDNT* VIII, 549-550; T. H. McApline, *Sleep, Divine and Human in the Old Testament*, JSOTSup 38 (Sheffield: JSOT, 1987), 155-158을 보라. 또한 T. Muraoka, *Hebrew/Aramaic Index to the Septuagint: Keyed to the Hatch-Redpath Concordance* (Grand Rapids: Baker Books, 1998), 79도 참조하라.

생각할 수 있다.<sup>14)</sup> 그러나 비록 히브리 성경에는 후대 유대교 문헌보다 잠과 죽음의 연관성이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구약 주변세계의 문학에 이러한 연관 주제가 보편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단지 후대 유대교의 특징으로만 단정하기는 어렵다. 잠과 죽음의 연관성이 다른 문학에서 보다 구약 성경에 덜 나타나는 사실이 그러한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잠이 죽음의 비유로 사용된 것과 더불어 잠이 단순하게 가지고 있는 생리적인 차원을 넘은 신화에서 나타나는 초월적인 요소는 구약과 구약 주변세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신이 잠을 자는 주제이다. 가나안의 신화에서 바알 신이 무트 신과의 싸움에서 져서, 죽음의 잠을 잔 다음 아낀의 도움으로 다시 살아나 땅에 비를 내린다는 것은 우기와 건기, 또는 풍요와 빈곤 등의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우가릿 신화의 설명 방식이다. 이처럼 바알 신이 잠을 자는 것은 열왕기상 18장 27절에도 나타나는데, 이 본문은 엘리아가 바알의 예언자들과 싸우는 가운데 자기의 적대자들을 자극하는 맥락에서 나타나며, 반대로 주무시지 않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알과 행하는 논쟁이 드러난다.<sup>15)</sup>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구약 주변세계에서 신이 잠을 잔다는 주제가 구약과 신약(막 4:35-41 등) 성경에도 흐르고 있는 점이다.<sup>16)</sup>

עָרַחָהּ | לָמָּה תִּישָׁן | אֲדֹנָי הַקִּיּוֹנָה | אֶל־תִּזְנַח לָנֶחֱם BHS Ps 44:24

ἐξεγέρθητι ἵνα τί ὑπνούς κύριε ἀνάστηθι καὶ μὴ ἀπόση εἰς τέλος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개정 시 44:24[23]; 78:65 참조)

물론 시편에서 주무시는 하나님을 깨우는 표현은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의 탄식의 맥락에서 문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17)</sup> 그러나 신이 잠을 자는 주제는 가나안과 이집트를 비롯한 구약 주변세계에서 흔하게 찾을 수 있는 주제로, 백성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평온한 잠을 주무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휴식과 잠은 창

14) J. G. S. Thomson, "Sleep: An Aspect of Jewish Anthropology", 428 이하.

15) H. Schmidt, *Die Psalmen*, HAT 15 (Tübingen: Mohr Siebeck, 1934), 222; J. Schüpphaus, "שׁ, yāšēn", 441; 이형원, 『열왕기상』,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10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370.

16) T. H. McApline, *Sleep, Divine and Human in the Old Testament*, 181-199; B. F. Batto, "The Sleeping God: An Ancient Near Eastern Motif of Divine Sovereignty", *In the Beginning: Essays on Creation Motifs in the Ancient Near East and the Bible*, Siphrut 9 (Winona Lake: Eisenbrauns, 2013), 139-157.

17) M. Dahood, *Psalms 1*, AB 16 (New York: Doubleday, 1965), 267-268.

조 이야기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이 또한 구약 주변세계의 신화와 같은 맥락에 있다.<sup>18)</sup>

이처럼 잠과 관련된 세 개의 히브리 낱말이 관용어구로 사용되거나 병행구로 사용된 점, 더 나아가 죽음의 잠, 또한 신의 잠이라는 비유와 상징의 맥락에서 사용된 사실은 이러한 잠과 관련된 동의어들을 단지 신체적이고 생리적인 차원에서 잠의 단계나 깊이로 해석하는 것은 설득력이 모자라는 점을 반증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 때문에 ‘라담/타르데마’의 신학 의미가 ‘눔/트누마’, ‘야산/세나’의 신학 의미와 차별화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눔/트누마’, ‘야산/세나’의 모든 용례가 ‘라담/타르데마’와 병행되어 나타나지 않고, 그들의 모든 용례가 비유와 상징의 맥락에서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독자들은 ‘타르데마’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을 찾아야 할 이유가 있다.

### 3. 깊은 잠

‘깊은 잠’(창 2:21; 15:12; 삼상 26:12; 욥 4:13; 33:15; 잠 19:15; 사 29:10)과 ‘깊이 자다’(삿 4:21; 시 76:7[6]; 잠 10:5; 단 8:18; 10:9; 욘 1:5, 6)라는 낱말은 구약성경에서 각각 일곱 번씩 나타난다. 앞의 단락에서 ‘눔’과 ‘야산’과 ‘라담’이 가지고 있는 문자와 비유의 차원을 살펴보았다면, 그 범위를 ‘라담’과 그 명사형 ‘타르데마’로 좁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학자들이 ‘타르데마’와 관련하여 행한 논쟁은 과연 ‘깊은 잠’이 하나님께서 기제(機制)로서 작용한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물리적인 차원의 자연적인 잠인가의 문제였다. 이 글에서 구약성경에 나타난 ‘깊은 잠’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낱말이 나오는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3.1.), 이 본문을 읽은 당시의 독자들이 이 낱말을 어떻게 이해했는가에 대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3.2.). 후자를 위해서는 히브리 본문을 처음으로 번역한 역본에 해당하는 칠십인역이 ‘깊은 잠’이라는 히브리 낱말 ‘타르데마’를 어떠한 번역기법을 사용하여 번역하였는가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3.1. ‘타르데마’(깊은 잠)와 ‘라담’(깊이 자다)의 용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깊은 잠’과 관련된 명사형과 동사형은 각각 일곱 번

18) B. F. Batto, “The Sleeping God”, 141-148.

씩 나타나는데, ‘깊은 잠’의 뜻과 기능을 이해하기 위하여 독자들은 하나님 이 사람을 잠들게 하신 것과 사람이 스스로 깊은 잠에 빠진 것의 두 범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하였다고 언급하는 본문은 여섯 본문이다(창 2:21; 삼상 26:12; 사 29:10; 시 76:7[6]; 단 8:18; 10:9). 먼저 창세기 2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깊은 잠에 떨어뜨리시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뽑으셔서 하와를 만드신다. 사무엘상 26장 12절은 다윗이 십 광야에 있는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아무도 모르게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 야웨께서 사울과 그의 부하들에게 ‘야웨의 깊은 잠’(יְהוָה תַּרְדֵּמָה)<sup>19)</sup>을 떨어뜨리셨기 때문이라고 언급한다. 이사야 29장 10절을 따르면 야웨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깊은 잠의 영’(רוּחַ תַּרְדֵּמָה)을 부으셔서 백성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어리석게 만드신다. 시편 76편 7절[6절]은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병거와 말도 깊은 잠에 빠져 무기력하게 된다고 노래한다. 마지막으로 다니엘 8장 18절과 10장 9절은 다니엘이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땅에 엎드려 깊은 잠에 빠진 것, 곧 기절하게 된 것을 나타낸다.<sup>20)</sup>

둘째로 사람이 깊은 잠에 들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나 어떤 영적인 존재를 만나거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이 피곤하거나 게을러서 스스로 깊은 잠에 든 경우는 8개 본문이다(창 15:12; 삿 4:21; 욥 4:13; 33:15; 잠 10:5; 19:15; 욘 1:5, 6).<sup>21)</sup>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어둠과 두려움 가운데 그에게 현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백 년 동안 다른 백성의 종살이할 것을 계시하신다.<sup>22)</sup> 사사기 4장 21절에는 바락을 피해 도망한 시스라가 피곤하여 깊이 잠드니, 야엘이 말뚝을 가져와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박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온다. 욥기 4장 13절과 33장 15절은 각각 엘리바스와 엘리후가 한 말로, 이들은 사람이 깊은 잠을 잘 때 특

19) M. Dahood, “Hebrew-Ugaritic Lexicography, XII”, *Bib* 55 (1974), 391은 ‘야웨의 깊은 잠’에서 ‘야웨’를 최상급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해석하고, O. Kaiser, *Isaiah 13-39: a Commentary*, OTL (London: SCM Press, 1974), 271은 사 29:10을 창 2:21에 연관시켜 인간의 의식을 몰아낸 무의식으로 이해한다.

20) J. E. Goldingay, *Daniel*, WBC 30 (Dallas: Word Books, 1989), 214-215는 다니엘에 나타나는 ‘깊은 잠’을 일종의 혼수상태로 이해한다.

21) W. Holladay, “Indications of Segmented Sleep in the Bible”, *CBQ* 69 (2007), 220.

22) 아브람이 깊은 잠을 자게 된 배후에 아브람과 계약을 맺으려고 하신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는가(G. H. Wenham, *Genesis 1-15*, WBC 1 [Waco: Word Books, 1987], 331-332), 아니면 아브람의 깊은 잠이 단지 자연적인 현상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 T. H. McApline, *Sleep, Divine and Human in the Old Testament*, 63은 창 15:12뿐 아니라 욥 4:13과 욥 33:15도 하나님이 깊은 잠을 유도한 것으로 이해한다.



별한 영적 체험을 하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묘사한다.<sup>23)</sup> 잠언 10장 5절과 19장 15절은 게으른 사람이 자는 깊은 잠에 대한 지혜의 가르침에 해당한다. 요나서 1장 5-6절에서 요나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친 풍랑 속에서 배 밑층에 내려가 평온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이는 역설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한 것(욘 1:9)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sup>24)</sup> 결국 이 가운데 잠에 끼친 신적 기원이나 영향과 전혀 상관없는 본문은 세 개 정도(삿 4:21; 잠 10:5; 19:15)로 생각할 수 있는데, 슈프하우스(Schüpphaus)는 사사기 4장 21절에도 하나님의 개입이 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sup>25)</sup>

이러한 ‘타르데마’의 용례를 통해 볼 때, 독자들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사람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한 초자연적인 경우와 사람이 자연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게 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주석가들에 따라서는 이러한 구분이 큰 의미가 없으며, 실제로 본래 ‘타르데마’는 사람의 일상적인 잠으로서, 이러한 기본적인 의미가 초자연적이고 신학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 확장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할러데이(Holladay)가 이러한 입장을 대변하는데, 그는 특별히 분할 수면(segmented sleep) 이론에 따라 히브리 낱말 ‘타르데마’는 분할 수면 가운데 깊은 잠에 해당하는 첫 번째 잠(first sleep)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이러한 추론은 사사기 4장 21절과 요나 1장 5-6절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 본문들이 밤 시간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낮 시간에 벌어진 사건으로서 잠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었을 때 가장 처음 잠이 든 것으로 현대 이론에 비추어 해석하고 있다.<sup>26)</sup> 이러한 해석이 일부 가치가 있는 것은 그동안 독자들이 성경에서 간과했던 잠의 분야를 인류학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였다는 사실<sup>27)</sup>과 성경에 나타나는 이러한 분할 수면에 대한 본문이 실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예배와 기도의 역사에서 밤 기도의 형태로 나타나는 점에서 그러하다.<sup>28)</sup> 그러나 다른 한편 그의 이러한 결론은 ‘타

23) K. Fullerton, “Double Entendre in the First Speech of Eliphaz”, *JBL* 49 (1930), 320-374와 S. Terrien, *Job*, CAT 13 (Genève: Labor et Fides, 2005), 119는 읊기에 나타나는 ‘깊은 잠’을 무아지경 또는 신적인 기원에서 온 혼수상태로, D. J. A. Clines, *Job 1-20*, WBC 17 (Dallas: Word Books, 1989), 129는 정상적인 잠으로 해석한다.

24) M. Oeming, “רָדַם *rdm*; תַּרְדֵּמָה *tardēmā*”, 338.

25) J. Schüpphaus, “שָׁן *yāšēn*”, 338-440.

26) W. Holladay, “Indications of Segmented Sleep in the Bible”, 220-221.

27) 성경을 인류학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최근의 연구를 위하여는 A. S. Desnitsky, “Bible Translation between Anthropology and Theology”, 『성경원문연구』 34 (2014), 271-288.

28) J. Penner, *Patterns of Daily Prayer in Second Temple Period Judaism*, STDJ 104 (Leiden - Boston: Brill, 2012), 165-171은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각주 2의 에커지(A. R.

르테마'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이고 신화적인 차원을 밝히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데, 이는 그가 서론부터 인류학과 문화사의 관점에서 성경에 나타난 분할 수면의 표지들을 밝히는 가운데(룻 3:8; 마 25:1-13; 눅 11:5 등), '타르테마'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할러데이는 창세기 2장 21절에서 나타나는 '타르테마'를 초자연적인 잠의 형태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은 이 낱말이 창조의 문맥에서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그는 신이 인간에게 깊은 잠을 떨어뜨린다는 표현이 가나안과 이집트와 그리스를 비롯한 구약 주변세계의 신화에 나타나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sup>29)</sup>

이러한 점에서 할러데이의 주장보다 쉬프하우스와 맥알파인(T. H. McAlpine)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먼저 쉬프하우스는 구약에 나타나는 잠은 단지 인간의 생리적인 차원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 인간의 지각을 차단하고(삿 4:21; 삼상 26:12) 세상에 개입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sup>30)</sup> 맥알파인은 타르테마는 하나님이 유도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인간은 원하지 않은 잠을 잔 것이라고 주장한다.<sup>31)</sup> 창세기 2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타르테마', 곧 창조 과정에서 일종의 혼수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신체적으로는 '야산', 곧 신체적인 잠에 들게 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구약에 나타나는 '타르테마'가 인간이 누리는 자연적이고 생리적인 잠에서 상징적이고 초자연적인 의미로 확장된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깊은 잠의 배후에 하나님의 기체가 암묵적으로 작용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쉽게 일반화할 수 없고, 결국 궁극적인 해석을 위하여 각각의 주석자가 자신의 해석에 따라 규정할 문제이며, 마소라 본문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오늘날 독자들은 히브리 본문에 대한 최초의 번역본인 칠십인역을 의지할 필요가 있다.

### 3.2. 칠십인역의 번역

'깊은 잠'이 히브리 본문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와 '잠'이 '죽음'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칠십인역의 번역을 살펴보는 것이 쓸모 있다. 칠십인역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신앙의 필요를 따라 번역한 최초의 번역 성경이고, 헬레니즘 문화의 배경 가운데 번역되었다는 점에서

Ekirch)와 각주 21의 할러데이(W. Holladay)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9) H. Balz, "ύπνός", 546; B. F. Batto, "The Sleeping God", 146.

30) J. Schüpphaus, "ןשׁ yāšēn", 338-440.

31) T. H. McAlpine, *Sleep, Divine and Human in the Old Testament*, 59.

그리스 신화에 나타나는 ‘잠’과 ‘죽음’의 문제가 칠십인역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검토하는 일은 흥미로운 작업이다.

그런데 독자들이 ‘깊은 잠’과 그의 동사형이 나오는 14개의 본문을 칠십인역에 나타나는 그의 대응어를 살펴볼 때 매우 놀라게 된다. ‘라담’ 또는 ‘타르데마’라는 낱말을 칠십인역은 9개의 서로 다른 낱말로 옮기고 있는 점에서 그러하다.<sup>32)</sup> 더 나아가 칠십인역 개정본을 모두 고려하면 마소라 본문에 단지 14번 나오는 ‘라담’과 ‘타르데마’가 서로 다른 11개의 그리스 낱말로 번역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sup>33)</sup>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은 특별히 ‘라담’을 지니고 있는 다니엘서의 경우 칠십인역과 테오도시온 개정본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는 점에서 그러하다.<sup>34)</sup> 일반적으로 칠십인역 학자들은 오경이 가장 먼저 번역되었고, 오경 이외의 책들을 번역한 번역자는 칠십인역 오경에 사용된 그리스어가 일종의 사전 역할을 했다고 가정할 때,<sup>35)</sup> 창세기 2장 21절과 15장 12절에 두 번 나오는 ‘타르데마’의 대응어로 사용된 ‘엑스타시스’(ἔκστασις)<sup>36)</sup>가 나머지 12개의 본문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

וַיְהִי הַשָּׁמֶשׁ לָבוֹא הִתְרַדְּמָה נִפְלָה עַל־אַבְרָם וְהָגָה אִימָה חֲשֵׁכָה גְדֹלָה נִפְלָתָ עָלָיו׃  
 περί δὲ ἡλίου δυσμᾶς ἔκστασις ἐπέπεσεν τῷ Ἀβραμ καὶ ἰδοὺ φόβος  
 σκοτεινὸς μέγας ἐπιπίπτει αὐτῷ

And about sunset a *trance* fell upon Abram and look, a great dark *fear* was falling upon him.(NETS)

그리고 해질녘에 **황홀경**이 아브람에게 떨어졌고, 어둡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떨어졌다(칠십인역에 대한 직역)(창 15:12상)

더욱 이해하기 힘든 사실은 ‘타르데마’와 그의 동사를 가지고 있는 14개

32) J. G. S. Thomson, “Sleep: An Aspect of Jewish Anthropology”, 422.

33) 구체적인 낱말을 위해서는 T. Muraoka, *Hebrew/Aramaic Index to the Septuagint*, 135와 160을 보라.

34) 다니엘서의 칠십인역과와 테오도시온 사이에 있는 난해성을 위해서는 G. Dorival, M. Harl, O. Munnich, *La Bible grecque des Septante : Du judaïsme hellénistique hellénistique au christianisme ancien*(Paris : Cerf - CNRS, 1988), 153-155; K. H. Jobes, M. Silva, 『70인역 성경으로의 초대』, 김구원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7), 58-59를 보라.

35) J. Moaliti-Fine, “La tâche du traducteur”, C. Dogniez et M. Harl(dir.), *Le Pentateuque : la Bible d’Alexandrie* (Paris: Gallimard, 2003), 620-635.

36) M. Harl, *La Genèse, La Bible d’Alexandrie 1* (Paris: Cert, 2010), 105, 165는 창 2:21의 ‘엑스타시스’는 일종의 마비상태로, 창 15:12의 ‘엑스타시스’는 그 후반절에 따라 ‘두려움’으로 이해한다. ‘엑스타시스’는 창 27:33에 한 번 더 나타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 낱말은 ‘타르데마’가 아니라 ‘떨’에 해당하는 ‘하라다’(חָרַדָּה)이다.

의 본문 가운데 자구적으로 ‘깊은 잠’으로 번역한 칠십인역 본문은 다니엘 8장 18절의 ‘자다’(κοιμάω) 또는 시편 76편 7절[한글 6절]의 ‘졸다’(νυστάζω)를 제외하면 단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그 외에 칠십인역은 ‘타르데마’나 ‘라담’을 사무엘상 26장 12절에서 ‘놀람’(θάμβος), 욥기 4장 13절과 33장 15절에서 ‘두려움’(φόβος와 δεινός φόβος), 이사야 29장 10절에서 ‘인사불성’(κατάνυξις), 사사기 4장 21절에서 ‘의식을 잃다’(ἐξίστημι), 잠언 10장 5절에서 ‘바람에 의해 망하게 되다’(ἀνεμόφθορος δὲ γίνεται), 다니엘 10장 9절에서 ‘떨어지다’(πίπτω), 요나 1장 5절과 6절에서 ‘코골다’(ρέγχω) 등의 여러 낱말로 각기 다르게 옮기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마소라 본문과 칠십인역의 이본 현상에 대하여 독자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를 따져볼 수 있다. 첫째, 칠십인역이 대본(Vorlage)으로 삼은 히브리 사본이 마소라 사본과 다른 경우이다. 둘째, 그리스어로 번역한 칠십인역 번역자가 마소라 사본을 자신의 신학 의도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한 경우이다. 셋째, 번역자가 히브리어 낱말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해 잘못 옮긴 경우이다.

열네 번에 걸쳐 나오는 ‘라담’과 ‘타르데마’가 칠십인역이나 칠십인역 개정본에 따라 9개 또는 11개의 서로 다른 그리스어 낱말로 번역되었다는 사실은 위의 세 가지 경우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가? 위의 첫째 경우, 곧 칠십인역이 가지고 있었던 대본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칠십인역과 마소라 사본의 문제는 입증하기 힘들고, 14개의 사본이 다 달랐다는 가정은 설득력이 없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 톰슨은 셋째 경우에 속하는데, 칠십인역을 번역한 사람들이 ‘타르데마’라는 히브리 낱말의 뜻을 몰라서 당혹해한 결과가 이처럼 다른 대응어를 산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sup>37)</sup> 그러나 이러한 톰슨의 설명은 자기모순을 일으키는데, 그는 열네 번에 걸쳐 나오는 ‘타르데마’와 ‘라담’이 모두 분할 수면에서 ‘첫 번째 잠’을 뜻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주장하기 때문이다.<sup>38)</sup> 이처럼 히브리 본문에서 ‘타르데마’가 명백하게 ‘첫 번째 잠’을 뜻했다면, 이처럼 분명하고 단순한 히브리 낱말을 당시 유대인들이 몰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와 달리 맥알파인은 칠십인역에 나타나는 다양한 그리스어 낱말은 히브리어 ‘라담’과 ‘타르데마’가 가지고 있는 다의성(polysemy)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그에 따르면, ‘라담’과 ‘타르데마’는 하나님이 유했했는가, 인간의 단순한 잠인가, 잠을 유도한 원인인가, 계속 진행되는 깊은 잠인가 등 다

37) J. G. S. S. Thomson, “Sleep: An Aspect of Jewish Anthropology”, 422.

38) 이는 T. H. McAplaine, *Sleep, Divine and Human in the Old Testament*, 55의 비판이기도 하다.

양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칠십인역 번역자도 이러한 ‘라담’과 ‘타르데마’의 다의성에 따라 여러 낱말을 선택한 것으로 이해한다.<sup>39)</sup> 톱슨의 주장과 반대로 독자들은 칠십인역 번역자가 자신의 대본을 자유롭게 번역한 경우에 히브리 낱말의 뜻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 단어를 자유롭게 선택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칠십인역 번역자의 번역 기법을 살펴보면, 번역자는 히브리어 낱말이나 문장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주저하는 경우에 오히려 직역하여서, 의역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sup>40)</sup> 맥알파인의 주장은 일부 설득력이 있지만 완벽하지 않은 것은 모든 칠십인역 번역자가 다의적인 히브리 낱말에 대하여 ‘타르데마’의 경우와 같이 극단적으로 비밀관적인 경향을 띠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독자들은 ‘타르데마’를 번역한 칠십인역의 번역 원칙 중에 두 가지 사항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비록 칠십인역 번역자가 오경 이외의 본문에서 ‘엑스타시스’ 이외에 서로 다른 낱말을 선택하고 있지만, 이들이 그저 원칙이 없는 번역자의 자유로움에서 기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욥기 4장과 33장에서는 ‘타르데마’를 번역하기 위하여 ‘두려움’이라는 그리스어를 선택하고 있는데, ‘깊은 잠’과 ‘두려움’의 짝은 이미 창세기 15장 12절에서 그 짝이 나타나고 있다.<sup>41)</sup> 곧 칠십인역 번역자는 독자들에게 그 문맥을 더 바르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알맞은 대응어를 고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칠십인역 번역의 둘째 특징은 일반적으로 잠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낱말인 ‘휘프노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점이다. 시편 76편과 다니엘 8장에서 그나마 잠에 해당하는 낱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굳이 ‘휘프노스’를 사용하지 않은 점은 매우 특이하다. 독자들은 일상적이고 생리적인 잠과 관련된 히브리 낱말 ‘눔’과 ‘야산’을 옮길 때에는 칠십인역 저자가 ‘휘프노스’를 주저하지 않고 사용한 사실에서 어느 정도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독자들이 아무런 혼란 없이 일상적인 잠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본문에서는 그리스의 신명인 ‘휘프노스’를 사용하지만, 그 단락이 어느 정도의 상징적이고 초자연적인 맥락 가운데 있을 때에는 ‘휘프노스’를 쉽게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이러한 가설은 물론 입증하기

39) Ibid., 65.

40) 칠십인역의 번역기술과 그에 대한 참고문헌을 위해서는 김선종, “히브리 관용어 표현에 대한 번역기술 - ‘마음 위에 말하다’(על-לב)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30 (2012), 7-24를 보라.

41) C. Westermann, *Genesis 12-36: A Commentary*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5), 226.

쉽지 않지만, 만일 이러한 가설이 사실이라면 당시 칠십인역 번역자들도 ‘타르데마’를 단지 분할 수면 이론에서 말하는 자연적이고 생리적인 첫 번째 잠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흐름에서 이해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4. 결론

깊은 잠(타르데마)! 그것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창조를 위한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였으며, 반대로 게으름과 죽음에도 이르게 하는 것이었다. 현대의 철학자와 심리학자가 잠과 무의식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기 전에, 이미 구약의 신앙인들은 깊은 잠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이고 생산적인 뜻과 함께 파괴적인 힘이 가지고 있는 위험도 인식하고 있었다.

구약에 나타나는 깊은 잠은 단지 신체적인 차원에서 인간이 잠드는 첫 번째 잠이 아니라,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역사의 장이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인간의 경험이다. 깊은 잠이 죽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고는 단지 그리스 사람이 상징의 언어로 만들어 낸 인간과 우주의 질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사고이다. 밤, 어두움, 잠, 꿈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낮, 밝음, 활동, 인식이 가진 힘에 언제나 그 자리를 양보해 왔다.<sup>42)</sup> 그러나 이러한 두 축에 대한 균형 있는 묵상은 인간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과 우주의 이미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이다.

#### <주제어>(Keywords)

깊은 잠, 첫 번째 잠, 죽음, 신화, 마소라 본문, 칠십인역.

Deep Sleep, First Sleep, Death, Mythology, Masoretic Text, Septuagint.

(투고 일자: 2015년 2월 5일, 심사 일자: 2015년 2월 27일, 게재 확정 일자: 2015년 3월 21일)

42) M. Foucault, *Histoire de la folie à l'âge classique* (Paris : Gallimard, 1998).

<참고문헌>(References)

- 김상환, 홍준기 편, 『라캉의 재탄생』, 서울: 창작과비평사, 2002.
- 김선종, “히브리 관용어 표현에 대한 번역기술 - ‘마음 위에 말하다’(מַדְבַּר עַל-לֵב)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30 (2012), 7-24.
- 김선종, “칠십인역 잠언 18:8; 19:15의 안드로귀노스: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인간이해”, 『성경원문연구』 31 (2012), 47-65.
- 이형원, 『열왕기상』,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10,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 Balz, H., “ὑπνος”, *TDNT* VIII, 545-556.
- Batto, B. F., “The Sleeping God: An Ancient Near Eastern Motif of Divine Sovereignty”, *In the Beginning: Essays on Creation Motifs in the Ancient Near East and the Bible*, Siphrut 9, Winona Lake: Eisenbrauns, 2013, 139-157.
- Clines, D. J. A., *Job 1-20*, WBC 17, Dallas: Word Books, 1989.
- Dahood, M., *Psalms 1*, AB 16, New York: Doubleday, 1965.
- Dahood, M., “Hebrew-Ugaritic Lexicography, XII”, *Bib* 55 (1974), 381-393.
- Desnitsky, A. S., “Bible Translation between Anthropology and Theology”, 『성경원문연구』 34 (2014), 271-288.
- Dorival, G., Harl, M., Munnich, O., *La Bible grecque des Septante : Du judaïsme hellénistique au christianisme ancien*, Paris: Cerf - CNRS, 1988.
- Ekirch, A. R., 『밤의 문화사』, 조한욱 역, 파주: 돌베개, 2008.
- Foucault, M., *Histoire de la folie à l'âge classique*, Paris: Gallimard, 1998.
- Freud, S., 『꿈의 해석』, 홍성표 역, 서울: 홍신문화사, 2001.
- Fullerton, K., “Double Entendre in the First Speech of Eliphaz”, *JBL* 49 (1930), 320-374.
- Goldingay, J. E., *Daniel*, WBC 30, Dallas: Word Books, 1989.
- Harl, M., *La Genèse*, La Bible d'Alexandrie 1, Paris: Cerf, 2010.
- Holladay, W., “Indications of Segmented Sleep in the Bible”, *CBQ* 69 (2007), 215-221.
- Jobes, K. H., Silva, M., 『70인역 성경으로의 초대』, 김구원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7.
- Kaiser, O., *Isaiah 13-39: a Commentary*, OTL, London: SCM Press, 1974.
- Kennedy, J., *Studies in Hebrew Synonyms*, London: Williams & Norgate, 1898.
- McApline, T. H., *Sleep, Divine and Human in the Old Testament*, JSOTSup 38, Sheffield: JSOT, 1987.

- Moalitti-Fine, J., “La tâche du traducteur”, *Le Pentateuque : la Bible d’Alexandrie*, C. Dogniez et M. Harl(dir.), Paris: Gallimard, 2003, 620-635.
- Muraoka, T., *Hebrew/Aramaic Index to the Septuagint: Keyed to the Hatch-Redpath Concordance*, Grand Rapids: Baker Books, 1998.
- Oeming, M., “רדמ; תרדמָה *tardēmā*”, TDOT XIII, 337-340.
- Penner, J. *Patterns of Daily Prayer in Second Temple Period Judaism*, STDJ 104, Leiden; Boston: Brill, 2012.
- Rousseau, J.-J., *La Nouvelle Héloïse*, Paris: Le Livre de Poche, 2002; 『신엘로이즈 2』, 서익원 역, 서울: 한길사, 2008.
- Schmidt, H., *Die Psalmen*, HAT 15, Tübingen: Mohr Siebeck, 1934.
- Schüpphaus, J., “שׁ? *yāšēn*”, TDOT VI, 438-441.
- Terrien, S., *Job*, CAT 13, Genève: Labor et Fides, 2005.
- Thomson, J. G. S. S., “Sleep: An Aspect of Jewish Anthropology”, *VT* 5 (1955), 421-433.
- Wenham, G. H., *Genesis 1-15*, WBC 1, Waco: Word Books, 1987.
- Westermann, C., *Genesis 12-36: A Commentary*,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5.



<Abstract>

## Theological and Symbolic Meaning of Deep Sleep(תַּרְדֵּמָה)

Sun-Jong Kim

(Honam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inary)

This paper attempts to clarify the meaning of the Hebrew word *tardēmā* by analyzing the Masoretic and Septuagint texts that contain this word. This work encourages the readers to contemplate whether *tardēmā* in Gen. 2:21 acts as an agent of God in the creation of His humankind or simply signifies deep sleep in a physiological sens.

So far, the commentators generally interpreted the three Hebrew words concerning sleep(*tēnumā*, *šēnā*, and *tardēmā*, and their nominal forms) as a depth or stage of sleep. Recently some commentators define *tardēmā* as the first sleep in a physiological perspective. However, the idiomatic usages and parallel phrases of these words indicate that the above understanding of *tardēmā* is very simplistic. This argument is strengthened by considering that the Masoretic and Septuagint texts use these words figuratively with supernatural connotation.

This study compares the three words on sleep,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sleep and death that appear in the Hebrew Bible and Greek myths, and considers the usages of *tardēmā* in the Septuagint. It is notable that the Septuagint uses 9 different words in order to translate the same word *tardēmā* that appears 11 times in the Hebrew Bible. It implies that the readers at that time tried to interpret *tardēmā* in the figurative and symbolic manner according to the context to which this word belongs.

Our study will leads the readers to the fact that ‘deep sleep’ in the Hebrew Bible is not merely the physiological first sleep, but the place where God works and the human experience that enables his participation in divine creation.